

가족, '하나님의 광야학교'

'화목한 가족,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이는 일종의 허상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가족은 사람들이나 사회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육체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족의 중심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무너졌다. 자연히 부모 간의 연합도 깨어졌고,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관계나 형제·자매의 우애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 간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겠는가.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등 가족들이 서

◎ 양혜원(총신대 사회복지학과)

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해하는 장면은 성경 속에서 찾기도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의 가족도 이런 모습에서 더 하면 더 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도나 폭력 등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부부관계의 상처들은 딱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오히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이혼은 부쩍 늘었다. 특히 오늘날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에 심각한 왜곡과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열기가 세삼스러울 건 없지만, 최근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자녀의 대입과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는 양상이 광고에 가까운 맹목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말 보도된 한 사건은 깨어진 부부관계, 왜곡된 부모-자녀관계의 실상과 그 참혹한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러 살해한 후 8개월 간 시신을 안방에 숨겨두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년째 별거 중인 아버지가 오랜 만에 집에 찾아오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고3인 그 학생은 수능 모의고사 전국 4000등 수준의 우등생인데, 어머니는 전국 1등을 강요하고 반드시 서울대 법대에 가야한다며 길땀하면 콜프채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밥을 안 주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1. 11. 24)

한국 가정의 부부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의 아내폭력 발생률과 이혼율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지난 1년간 남편에게 신체 폭력을 당한 아내는 전체 15.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이다. 아내 폭력은 과거로부터 지속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그 주요 원인이란 하면,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 모든 유형의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 인 문화, 폭력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 문제로 여기는 경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다소나마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안과 경쟁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축적시키면서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 역시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2010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이혼 가구가 비율은 7.3%이다. 이 수치는 10년 전의 2.3배, 20년 전의 7.3배, 30년 전의 18.1배 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혼율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특이점 중 하나다. 부부관계가 서로에 대한 헌신과 믿음에 기초하기 보다는, 단순히 구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얽혀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과도한 교육

열이다. 학업에 집착하면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모의 모습은 더 이상 낫설지 않다. 세 살짜리 아이에게 영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가르치려는 젊은 엄마 들, 방과 후 학원 두세 군데 이상을 도는 게 기본이 된 초등학교들, 평일에 집에서 피곤한 저녁식사를 하는 중 고등학생은 거의 희귀종이 되고 만 현실, 이처럼 대다수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모순된 것은 실상 그들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부모들이 진학률이 높은 학교,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 수많은 입시전형 등의 정보를 출출 꿰고 있으나 딱 지기까지만이다. 자녀 들을 다른 데 맡기며 열심히 관리만 할 뿐, 그들의 인격과 영적 성장을 위한 훈육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우가 많다.

[아버지의 이해심_ 자녀의 명문대 진학 조건 중 하나. 여기서의 이해심이란 어머니가 자녀입시에 '올인' 하는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뜻함]

세간에 떠도는 우스갯소리인데, 내막을 알면 슬픈 현실 이 보인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아버지는 단순히 학원비를 벌어들여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역할포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에게 올인하는 어머니라 고 해서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사실 문제다. 자녀의 일정을 관리하고 기사 노릇을 하는 로드 매니저(road manager)든,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밖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근로자는 결국 진정한 부모는 사라진 셈이다.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상실한 채 성장기라는 혼란의 강을 혼자서 건
내고 있다.

인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역시 가족문제에서 예외가 아
니다. 갈등으로 오래도록 고통스러워하는 부부들 교
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의 아내폭력 발생률이나 이혼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나친 교육열과 자녀에 대한 과잉
집착의 대열에서도 기독교인은 빠지지 않는다. 많은 기
독교인 부모들도 "명문대에 가고 지경을 넓혀서 세상에
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
광을 돌려야 한다"며 자녀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문제
는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서 진정
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를 아끼고 존경하며 살아야 하고 존경하며 살아가기에, 부
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무척 어려운 나라가 되
어버렸다.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가 먼저이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부부
관계가 탄탄해야 한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횡적 축인 부부관계보다는 종적 축인 세대 간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전통
적 효 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고, 오늘날 나
타나는 자녀에 대한 '울인'은 그 방향이 역전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가족의 중심이 부부관계
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한다'(창세기 2장
24절) 가르치고 있다.

가족상담의 토대가 되는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고 가족 내에 여러 하위체계
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예컨대 부부하위체계, 부모-
자녀하위체계, 형제·자매하위체계 등이 그것이다. 이
러한 하위체계들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상호 직·간

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히 가족의 중심점이 되는
부부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모역할
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한 체계이며, 바람직한 부모역할
의 전체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경험적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심화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
치게 소홀해지거나 반대로 자녀와 과하게 밀착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의 중심이면서 좋은 부모의 선행조
건인 '부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
로 '기리기 가족'이라고 하겠
다. 기리기 가족은 자녀교육
을 위해 부부관계를 전적으
로 희생하는 극단적인 선택
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교회
안에서도 기리기 가족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인들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
는 않아서 안타깝다.

**자녀의 대학입시와 세속적 성공에 집착하는 현 세태에
서 반드시 비켜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엄중한 자기성찰이 필수적이다. 자녀의 교육과 성공에
집착하는 기독교인 부모들의 욕망이 지극히 세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럴 듯하게 포장하더라
도, 실은 그저 내 자식이 더 나은 지위와 더 많은 부를
누렸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자녀가 믿음의 유산 얻기
를 바라지 않고, 고작 외제차나 명품백을 갖기 원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다음으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

교인들조차 광기어린 경쟁 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떠나 할 것 없이 모두 판·
검사, 의사가 되려는 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
녀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가 이념을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양성을 인
정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
를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자녀의 은사에 대한 확
신이 서면, 그 영역에서 탁월한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말이다.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밖으
로 나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
력을 끼쳐야 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임버릇치

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공'이 세상에
확실한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말아
이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데, 작년 수능시험이 끝
나고 교육계서 학부모들에게 당부하신 기도제목에 이
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 실력에 비해 무
척 높은 수능성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몹시 염려
가 되니 그 학생을 위해서 꼭 기도해주세요" 세상에
서는 수능 당일의 반짝 기량을 위해서 부작용이 심하다
는 약도 구해다 먹인다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구별
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
까? 기도는 언제나 늘 필요하다. 하지만 교회마다 수능
100일 기도회를 여는 것만으로는 세상에 큰 힘을 미치
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
력해야 한다. 가족은 그 시대의 체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독교인 가족이 하나님 보
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가족들도 함께 그려낼 수 있도록 체도와 환경의 개선
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
떤 문제에 대해 교회 밖으로는 잘 나서지 못하는 경향
이 있다. 가족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예
컨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가정의 존립을 위협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크게 힘을 쏟지 못
해 왔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만들어질 때 별다
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2008년 이혼숙려제도 도입
을 골자로 한 이혼법 개정에도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
었다. 왜곡된 교육제도를 바로잡고 비뚤어진 자녀교육
열풍을 가라앉히려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노력도 여
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화목한 가족은 없다. 사실 가족은 하나님의 광아[교]이
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지열하게 훈련받아야 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의 배
움과 훈련을 잘 감당하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㉞



양혜원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스톤대학교와 연
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가정폭력이나 이혼과 같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족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